



다들 물어봐
어떻게
이렇게
되냐

미인

목·금 19:30

토·일 15:00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예술감독 김종덕

연출 양정웅

안무 정보경

의상·오브제디자인 서영희

음악 장영규

무대디자인 신호승



국립무용단 신작
〈미인〉

2025.
4.3 -
4.6











자연이 숨을 고르고 생명이 다시 깨어나는 4월, 국립극장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이 한국 문화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춤 또한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가장 빛나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전통을 기반으로 현대적인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국립무용단이 선보이는 오늘의 신작 <미인>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번 작품은 한국적인 미의 본질에 대한 깊은 탐구에서 출발해, 전통과 현대, 절제와 감성, 여성성과 시간의 흐름을 춤이라는 언어로 조화롭게 풀어낸 무대입니다. 이번 작품은 시대와 경계를 넘어 깊은 울림으로 관객의 마음에 스며들 것입니다.

작품의 완성을 위해 헌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종덕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겸 단장님을 비롯해 특별한 작업을 함께해주신 연출가 양정웅, 안무가 정보경, 작곡가 장영규, 의상 디자이너 서영희, 무대 디자이너 신호승을 비롯한 모든 창작진과 국립극장 스태프 그리고 국립무용단 단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립극장은 앞으로도 한국 문화가 세계 예술의 중심에서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찾아주신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한국 예술의 미래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립극장장
박인건



유난히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끝내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봄입니다. 국립무용단 신작 <미인>은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가들이 협력한 작품입니다.

<미인>은 전통적인 형식미를 유지하면서도 동시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무대를 통해 국립무용단의 정체성을 잘 반영한 완성도 있는 작품이 되리라 믿습니다.

특히, 국립무용단 여성 무용수들로 구성된 이번 작품은 단순히 전통춤의 재현이나 계승이 아니라 무궁한 역사 속에 발현된 우리 전통춤의 특징이나 원리를 고유의 정서를 바탕으로 현대예술로 승화시키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립무용단은 동시대 관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작품으로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무용단 예술감독·단장
김종덕

전통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작품을 통해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임을 증명해 온 국립무용단의 신작. 한국 예술계를 대표하는 아이콘들과 함께 우리 춤에 담긴 아름다움의 가치를 조명하고자 한다.

연출은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부터 연극·영화·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한 '국가대표 연출가' 양정웅이, 안무는 Mnet '스테이지 파이터'의 한국무용 코치이자 전국 투어 총안무감독으로 대중에게 한국무용의 매력을 널리 알린 정보경이 맡았다. 작품에서 "미인은 단순히 외형적 아름다움이 아닌, 시간과 경험이 완성한 아름다움을 표현한다"고 말하는 이들은 시공간을 초월한 한국적인 미(美)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무대를 완성한다.

'보그 코리아'에서 30여 년간 감각적인 스타일링으로 K-패션의 아이콘이 된 서영희가 의상·오브제 디자인을, '범 내려온다' '정년이' 신드롬의 주인공 얼터너티브 팝 밴드 이남치를 이끄는 장영규가 음악을, 걸그룹 에스파·아이브 등 최정상 케이팝 아티스트와의 협업으로 주목받는 아트 디렉터 신호승이 무대디자인으로 참여해 유례없는 스타일로 한국무용의 다채로운 매력을 발견하게 한다.

이번 작품은 국립무용단 여성 무용수만이 출연한다. 여성 무용수의 정교함과 강렬함의 대비되는 에너지는 우리 춤에 내재된 메시지와 철학을 극대화한다. 여기에 국립무용단 청년교육단원은 '흑자'로 분해 작품 속 보이지 않는 이면의 에너지를 표현한다. '부채춤' 속 자연미, '탈춤' 속 환희, '칼춤' 속 강인함, '뽕다리밟기' 속 순수함 등 11개의 민속춤에 담긴 한국의 아름다움이 조각보처럼 펼쳐진다.

미인도

여백의 미를 한껏 품은 화폭과도 같은 순백의 무대 위, 신윤복 '미인도'의 여인이 전형적인 미인을 표현한다.

뾰다리밟기

'동국세시기'에 기록된 여성들의 민속놀이 뾰다리밟기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한 춤이다. 고려 말 공민왕 때 흉건적의 난을 피해 안동으로 피난을 간 노국공주가 뾰다리밟기로 개울을 건너게 했다는 설에서 유래했다. 대보름 달빛 아래 여성들의 공동체적 에너지를 느끼게 한다.

승무 & 나비춤

인간 희로애락의 번민을 높은 차원에서 극복하고 승화하는 춤인 승무와 '장삼을 펼친 모습이 나비 같다'라고 해 이름 붙여진 나비춤을 동시에 선보인다. 어깨나 고개의 흔들림 없이 장삼 소매를 흠뻑리는 무용수의 느리고 깊이 있는 움직임이 인상적이다.

강강술래

민속놀이 강강술래를 모티브로, 만월처럼 둥근 원을 그리고 산을 돌며 끊이지 않고 원무를 반복한다. 강강술래를 추는 여성의 흥과 웃이 멋스럽게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북춤

진도북춤을 바탕으로 북소리의 진동과 울림을 대지의 어머니, 그 아름다운 에너지와 이미지로 승화시킨 장면이다. 북의 흥겨움을 담은 춤사위가 강한 생명력의 멋을 한껏 펼친다.

부채춤

양손을 활용한 쌍부채를 펴고 접으며 바람을 일으키고, 직선과 곡선, 대칭과 비대칭 등 매 순간 정교하고 치밀한 움직임으로 완성한 부채춤이다. 백두대간의 우아한 능선, 태극의 완곡선형 등 역동적인 동선을 담았다. 기존 부채춤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표현력으로 새로운 군무가 펼쳐진다.

칼춤

신윤복의 풍속화 '쌍검대무'와 무예도보통지에 나온 쌍검술을 토대로 춤으로 승화한 쌍검무, 그리고 360도 회전하며 화려한 소리를 내는 단검춤을 혼란했다. 용기 있게 칼을 든 채 옷자락을 휘날리며 힘차고 유연한 움직임을 선보인다. 느림하고 기세 당당한 무용수의 멋을 한껏 살렸다.

베가르기

진오귀 굿 중 무속의례 '베가르기' 과정에서 영감을 얻었다. 이승과 저승, 삶과 죽음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영과 육이 함께 존재하는 환상적 공간을 묘사한다. 지전을 든 무용수는 깊고 부드러운 동작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세계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산조 & 살풀이

산조(散調)의 흠어짐과 고름의 조화를 원형에 두고 자유로운 즉흥춤의 흐름을 연출한다. 검은색 살풀이 천을 공중에 흠뿌리며 액을 풀어내고, 슬픔을 환희로 승화시킨다. 희노애락의 감정을 넘어서 삶의 신성함을 춤으로 찬미한다.

탈춤

부여의 영고, 동예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 등 상상 속 한국적 카니발을 모티브로 구성된 장면이다. 탈춤의 춤가락 동작을 바탕으로 창작한 군무가 화려하게 펼쳐진다. 자연과 동물, 사람이 함께 평화롭고, 흥겹게 어우러지는 포용과 조화, 상생의 에너지를 춤으로 표현한다.

신미인도

'미인도' 주위로 드러난 미인들의 다채로운 아름다움이 무대를 가득 채운다.

내게 한국무용은 가장 아름다운 춤이다. 국가대표 무용수들이 모인 국립무용단과의 첫 협업인 만큼, 한국무용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무대를 만들고자 했다. 이번 작품에는 각 분야에서 전통을 끊임없이 실험하고 갱신해온 창작진들이 함께했다. 신호승님의 무대 위에서, 서영희님의 의상을 입고, 장영규님의 음악에 맞춰, 정보경님의 안무로 춤을 추는 국립무용단 29인의 여성 무용수들. 이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국적인 감각으로 스타일을 완성한 예술가들이다.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번 <미인>은 그 말의 의미를 무대 위에서 구체화한 작업이다. 작품을 통해 ‘무용은 어렵다’는 편견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민속춤의 익숙함만 남기고, 모든 장면을 새롭게 해석해, 누구나 감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름답고 강인한 여성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통해, ‘아름다움’의 본질과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했다.

여성 군무의 순수한 미를 담아낸 ‘뚝다리밟기’와 ‘강강술래’, 파워풀한 감각으로 재해석된 ‘부채춤’, 신윤복의 풍속화 ‘쌍검대무’에서 착안해 장검과 360도 회전하는 단검의 대조적 움직임으로 풀어낸 ‘칼춤’, 높이 뛰어오르는 도약의 특성을 한삼의 펼침과 떨림의 미학으로 재해석한 ‘탈춤’까지 이 모든 춤들은 한국 전통의 형식을 빌려오되, 동시대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낸 장면들이다.

이번 무대의 중심 오브제는 ‘달’이다. 한국인의 예술과 정서 속에서 달은 음양(陰陽)으로 표현되는 우주관, 즉 우리의 심미적 상징과 감정의 중심이었다. 또한 동양적 음양 세계관을 반영해, 음(달)을 주체로 두고 그 이면의 양(태양)을 태양의 그림자로 표현한다. 이 장면은 국립무용단에 새롭게 합류한 청년교육단원이 함께하며, 원숙한 무용수들의 깊이와 청년들의 에너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미래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국립무용단의 새로운 시도에 함께해 주시는 관객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트렌드세터라 생각한다. 한국적 아름다움이 감각적이고 세련된 미학으로 더욱 널리 확장되어 가기를 기대한다.

<미인>은 전통 한국춤의 근원을 바탕으로 동시대적 감각을 통해 아름다움의 본질을 다시 묻는 작품이다.

'미인'이라는 단어는 시대와 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변주되어 왔다. 우리가 바라보는 '미인'은 하나의 고정된 형상이나 특정한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 속에서 흐르고 감각 속에서 흔들리며 기억 속에서 생성되는 하나의 움직임이다. 한국 춤사위에는 세월을 관통하는 몸의 기억과 정서가 담겨 있다. 춤이란 결국 삶의 시간을 몸으로 응축하는 과정이기에 국립무용단의 여성 무용수들이 빚어내는 춤은 존재하는 모든 아름다움을 함축하고 있다.

내게 '미인'은 단순한 미적 대상이 아니라 춤을 향한 무용수들의 열망과 진정성 그 자체이다. 무용수들의 몸은 저마다의 시간을 품고 있으며 그 몸짓은 살아온 삶을 이야기한다. 때로는 개별적인 몸으로 때로는 집단적인 조형미로 그리고 때로는 하나의 강렬한 생명으로 무대 위에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미의 형태를 만들어낸다.

전통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지나 미래로 흘러가는 하나의 흐름이다. 전통이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을 존중하면서도 동시대적 시선으로 확장하고 재해석하는 것은 안무자로서의 깊은 책임이자 사유의 과정이었다. 우리의 '미인'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가? 여성의 강인함과 부드러움, 연약함과 단단함이 공존하며 전통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동시대적 몸짓과 감각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미인>을 통해 전통에서 출발한 한국춤이 동시대적 감각 속에서 어떻게 살아 숨 쉬며, 여성의 몸이 무대 위에서 어떠한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바라봐 주기를 바란다. 작품을 통해 춤이 가진 본질적 아름다움에 깊이 스며드는 경험을 하길 바라며 무용수들의 에너지가 관객의 내면과 공명하며 각자의 기억과 감각 속에서 새로운 해석으로 남기를 기대한다.

난 몸치이다.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생각을 몸으로 표현하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춤으로 감동을 주는 국립무용단의 공연을 보고 나면 손바닥이 빨개지도록 박수친다. 호흡을 가다듬고 정성껏 무대 인사하는 무용수들 앞으로 내려오는 검은 막이 무심하고 야속했다. 무용수는 박수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내게 양정웅 연출의 〈미인〉 의상·오브제 디자인 제안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간 멀리서 박수만 보내던 이들에게 옷을 입힐 수 있다니 황송하고 고마운 일이었다. 그간의 모든 노하우를 쏟겠다 마음먹었지만, 현실적인 생각이 필요했다. 우리 옷의 아름다움을 내 스타일로 풀어내 화보를 찍고, 전시를 위해 마네킹에 멋지게 연출해 보기도 했지만, 몸을 움직여 메시지와 철학을 관객에게 전하는 무용수에게 옷을 입혀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상상이 현실이 되기 위해선 제작감독이 필요했다. 의상과 오브제 디자인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김지원 제작감독이 의상을, 박규은 제작감독이 오브제를 맡아준 덕분에 지금의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었다.

‘산조 & 샅풀이’부터 디자인을 풀어나갔다. 100cm 땡기머리를 땡고, 비비드한 컬러의 태슬 가발이나 헤드피스로 변형을 주자고 생각하니 옷도 자유로워졌다. ‘샅풀이’와 ‘산조’가 결합한 작품인 만큼, 흰색의 한복과 한삼보다는 무용수의 몸을 드러낼 수 있는 속곳 차림의 변형을 생각했다. ‘승무 & 나비춤’에서는 서서히 자신을

밝혀나가는 여성의 힘을 표현하기 위해 시선을 사로잡는 의상과 빛을 발하는 헤드피스를 생각했는데 이 또한 제작감독들 덕분에 멋지게 구현할 수 있었다. ‘칼춤’은 무엇보다 강렬하고도 힘 있는 여성성을 보여주는 작품이기 때문에 승마복의 일종으로, 옛 여인들이 말을 탈 때 입었던 말군바지를 풍성하게 디자인했다. 상의는 몸에 맞는 형태로 활동감을 주었다. 전립은 얼굴을 가리는 펜싱 마스크에서 영감을 받아 앞을 살짝 꺾은 형태로 디자인했다. ‘강강술래’에서는 속곳부터 겉옷까지 복식이 완성되는 과정을 원을 돌며 보여주고 싶다는 안무가의 아이디어에 영감을 받아 디자인했고, ‘탈춤’에서는 한국의 카니발 형식을 보여주고 싶다는 연출의 의도에 따라 형형색색의 의상과 오브제가 무대를 가득 채운다.

이렇게 많은 창작진들의 빛나는 아이디어와 함께 의상과 오브제가 완성되었다. 너무도 감사한 일이다.



국립무용단 <미인>

이것이 동시대 최고 '어벤저스'의 실력이다!

지난 3월 11일, <미인>의 정식 공연 개막을 앞두고 해오름극장 4층 연습실에서 진행된 주요 장면 시연 현장의 화력은 놀라웠다. 칼춤에서 부채춤, 산조와 살풀이를 거쳐 탈춤으로 이어지는 첫 공개 행사를 보고 내가 취재 노트에 적은 문장은 이랬다.

해방이다!

첫 순서였던 칼춤에서부터 완벽하게 사로잡혔다. 서늘한 박력의 쌍검과 360도로 회전하며 신기(神氣) 어린 방울소리를 내는 단검이 따로 또 함께 현란한 춤사위를 만들어냈다. 양손에 검을 들고 빙글빙글 돌고, 서로 겨루듯 검을 부딪히고, 태권도의 품새처럼 정확한 동작을 하는 무용수들의 몸짓은 절도와 박력이 넘쳤다. 그리고 그 위로 쏟아지던 음악. 대체 무슨 악기를 쓰길래 보는 이의 마음을 이리 뜨겁게 몰아가나 싶어 장영규 음악감독에게 확인해 보니 컴퓨터 프로그램인 샘플러를 활용해 변형한 장구 소리와 신시사이저를 썼다고 알려주었다. 부채춤 역시 강렬했다. 이번에는 나일론 기타(Nylon Guitar), 저 멀리 플라멩코와 집시가 떠오르는 이국의 향기가 매혹의 선율로 훑 들어온 무대에서 무용수들은 우아하면서도 파워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다. 전통 공연에서 무궁화, 한복과 맞물려 곱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책임지던 부채는 땅을 쓸고 회오리를 일으키는 바람이 되어 무대를 장악했다.

음악도, 안무도 모두 총독적이어서 현장에서 찍은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봤는지 모른다. 정보경 안무가의 말. “부채춤의 목적은 본래 다채로운 자연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춤 안에 꽃을 포함한 다양한 자연의 모습이 들어가지요. 여성 무용수가 몸을 위로 세우는 동작도 그런 목적에서 나온 건데 이번 공연에서 부채는 자주 땅으로 향하고 땅에서 바람을 일으켜요. 그 안에서 '새로운' 자연을 탐색하는 거죠.”

산조와 살풀이를 거쳐 탈춤이 마지막 무대를 수놓았다. 전통적으로 탈춤은 남성 연희자만 출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제약을 확고하게 날려버렸다. 결과는? 남성 무용수의 부재를 알아채지 못할 만큼 역동적이었다. 각양각색의 탈이 대변하던 익살맞고, 수줍고, 신명나는 표정을 맨 얼굴로 연기한 무용수의 모습도 깊은 여운으로 남았다. 탈춤에서도 장영규의 음악은 제대로 폭발한다. 팝 밴드 이날치를 이끌며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준 '범 내려온다'에 버금가는 신명과 환희의 가락. 이 무대를 그대로 갖고 EDM 축제현장으로 가도 보는 이들을 단숨에 까무러치게 할 것이다.

‘대작’이라 할 만한 강력한 구성과 매혹
국립무용단이 양정웅 연출가와 손잡고 선보이는 <미인>은 K-댄스 대작이라 할 만했다. 레퍼토리시즌에 들어가 향후 몇 년 동안 반복돼도 전혀 촌스럽지 않을 것이다. 국립극장 측은 이번 창작진을 ‘어벤져스 군단’이라 칭했는데 그 비유가 전혀 어색하지 않다. 우선 구성과 연출을 맡은 양정웅이란 이름이 끌고 오는 믿음과 파워가 있다. 한국의 흥과 신명, 동양의 색채와 음악으로 세계적 수준의 미장센을 만드는 사람. 이번 공연에 임하는 그의 목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한국의 전통을 즐기는 것”이다. 안무가로는 Mnet ‘스테이지 파이터’ 한국무용 코치이자 2010년 스페인 빌라오 액트 페스티벌에서 동양인 최초로 그랑프리를 받은 정보경 분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미인>의 안무는 관념과 제약으로부터 해방된 듯 화끈한 몸짓과 춤선으로 아름다운데 막후에 그녀가 있다. “어릴 때부터 남성 무용수가 갖고 있는 힘이나 에너지를 가지려고 노력했고 그런 몸짓이 저의 메소드적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전원 여성 무용수로만 이뤄지는데 그 안에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성들의 내면에 담긴 다양한 층위의 에너지를 표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음악은 영화 <곡성>과 <암살>, 드라마 <정년>를 포함해 수많은 작품에서 팽팽한 긴장과 구멍처럼 깊은 선율을 만들어온 장영규 분이 맡았고 의상과 오브제디자인에는 패션 디자인과 전시 기획을 넘나들며 우아하고 완성도 높은 비주얼을 만들어온 서영희 분이 낙점됐다. 그녀의 작업은 어떤 것에는 귀족적 오라가 담기는데 이번에도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낸 초월적 미학을 엿볼 수 있다. 무대디자인도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 K-팝 그룹 에스파의 ‘위플래쉬’, 아이브의 ‘해야’ 뮤직비디오에서 보듯 건축과 공학, 동화적 상상력과 초현실적 상상을 버무리며 미래적 미감을 만드는 이라 이번에는 또 어떤 무대를 보여줄 지 기대가 된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적 미의 상징인 ‘달’을 표현하기 위해 해오름극장 상부에 지름 6.6m의 초대형 에어벌룬을 설치하고, LED 패널과 거대한 크기의 ‘산’이 동원된다.

‘미인’에는 다양한 상징과 의미가 담겨 있다.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새로운 한국의 미를 보여준다는 포부가 있고 단순한 외형의 아름다움이 아닌 오랜 시간과 경험이 만든 내공을 미의 본령이라 인식한다. 무대에 오르는 단원 전원을 여성 무용수로만 꾸린 것에도 연관성이 있다. 결핍과 부재는 특색을 만들어내는 필수 요소로 남성이 없으므로 무대는 새로운 소우주를 만들어낸다. 공연에서 보여주는 춤의 장면은 북춤과 나비춤, 강강술래를 포함해 11개에 이른다. 무속 의례인 ‘베가르기’도 포함된다. 이 오랜 전통의 몸짓들이 어떻게 전위적 모던이 되는지를 보는 지가 감상 포인트다. 정보경 안무가와 장영규 음악감독, 서영희 디자이너는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 “북춤, 탈춤, 부채춤 같은 레퍼토리는 누가 봐도 한국적이기 때문에 안무와 음악, 의상 모두 더 멀리까지 갈 수 있었다. 일반 관객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포인트가 꼭 있으면 좋겠다는 양정웅 연출가의 말도 상상력에 큰 날개를 달아주었다.”

변주를 강조했지만 이번 공연이 여전히 발붙이고 있는 것은 역사적 자료와 전통이다. 신윤복의 풍속화 ‘쌍검대무’, ‘동국세시기’에 나오는 여성들의 민속놀이 ‘뚝다리밟기’ 등 많은 춤과 이야기가 과거에서 왔다. 다만 그 전통을 동시대 문화예술의 첨병에 있는 최고의 ‘선수’들이 요리할 뿐. 전통은 사실 가장 매력적이어야 하는 문화 유산.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순간 역사도 끊기므로 늘, 마땅히 최고의 선수들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과거에서 해방될 때 또 한 번의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

패션쇼 같은 춤판서 만난 K-미인

국립무용단 신작 <미인>은 '세계가 주목할 K-댄스 대작'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내건 대형 프로젝트다.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총감독이자 한국미의 현대적 해석을 대표하는 연출가 양정웅이 연출과 구성을 맡고, 지난해 Mnet '스테이지 파이터' 안무코치로 한국무용 대중화에 일조했던 정보경이 안무를 맡았다. '보그 코리아'에서 30년간 패션 화보 스타일링을 도맡은 1세대 스타일리스트 서영희가 의상과 오브제 디자인을 맡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 대극장 공연 최초로 '여성무용수 만의 무대'를 표방했는데, 신윤복의 '미인도'가 규정해온 한국 여성의 미학적 틀을 깨부수기 위해서다.

'스테파'의 남성춤에 이어 여성춤까지 반전매력을 보여주려는 건가요.

양정웅 "한국의 미를 춤으로 보여주고 싶다면, 다양성 있는 민속무용을 여성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윤복 그림으로 미디어아트를 한 적도 있는데, 한국적인 미의 원형이 신윤복의 '미인도'잖아요. 단아한 미인도를 정형화된 여성미로 보고, 민속춤을 통해ダイナ믹하고 파워풀하고 포용과 조화, 상생의 에너지를 가진 여성의 다양한 모습을 '신미인도'로 제시하자는 콘셉트입니다. 살풀이·승무·부채춤·복춤·칼춤·탈춤 등 다채로운 민속춤을 통해 액자에 갇힌 게 아닌 '힘 있고 에너지 있고 흥이 있고 멋진 여성상'을 보여주려는 거죠."

정보경 "춤의 형식이 아니라 정서를 재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민속춤 11개를 원형 그대로 살리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전체적인 정서는 민속놀이를 변형시킨 '뽀다리밟기'에 담겨 있어요. 고려 공민왕 때 노국공주를 피난시키기 위해 여성들이 몸으로 다리를 놓은 데서 유래한 놀이죠. 연출님이 '여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민속춤'이라는 숙제를 주셨을 때, 하나의 큰 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여성들의 몸을 엮어서 누군가를 어딘가로 보낸다는 것에 가려진 마음들이 모여서 아주 큰 강인함이 되는 정서가 느껴지잖아요."

과연 '미인의 춤'은 어떤 것일까.
한국춤만의 춤선이 살아있되 기막힌
완급조절로 만들어내는 새로운
몸짓이 '이날치' 장영규의 트위스트 한
음악에 녹아들어 몹시 힙한 순간들을
만들어낸다.

한국무용에서 남성춤과 여성춤의 미학은 다르겠지요.

정보경 “한국춤은 힘을 다 풀었을 때
가장 큰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남성이
가진 파워풀한 에너지와는 다르지만,
모든 숨을 내뿔었을 때 나오는 여성춤의
에너지가 훨씬 매력적이죠. 저 자신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아주 강한
무언가가 나온다고 생각하며 춤을
췌었거든요. 저는 한국춤을 베이스로
컨템포러리를 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파생된 움직임과 메소드를 <미인>에
녹이고 있어요.”

'여성들만의 무대'도 도발이지만, 더
큰 도발은 따로 있다. 무용공연에서
부수적인 요소로 여겨지던 패션을
안무와 대등한 위치로 끌어올린 것.
K-패션과 K-무용을 하나로 묶은 'K-컬처'
상품을 세일즈한다는 빅픽처다.

**미장센으로 끝장을 보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양정웅 “이 제안을 받고 가장 고민한
건 브랜딩이었어요. 새로운 관객이
어렵지 않게 봤으면 하는데, 그 방법
중 첫 번째로 춤과 패션의 만남을
택한 거죠. 두 가지가 좀 충돌하고
불편하더라도 만나게 해서 우리 멋이 좀
많이 알려졌으면 해서요. 해외 행사를
가 보면 춤 따로 패션 따로 가는데,
시너지가 아쉽더군요. 춤과 패션이
하나의 브랜드로 같이 간다면 더 어필할
수 있을 겁니다. 그간 한국적인 작업을 할
때마다 늘 서영희 선생님에게서 영감을
받았던 터라, 이번에 꼭 같이 하고 싶어서
즐랐습니다.(웃음)”

서영희 “공연 의상은 첫 경험인데, 두
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일을 오래
하면서 느끼는 게 시대의 찬스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일찍 뭘 하려고 해도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못 하는데, 시대가
지나면 인재가 생기니까요. 단순히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를 넘어서 전통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인재들이 모이는
시대가 된 거죠.”

**오트 쿠튀르 컬렉션을 방불케 하는
의상과 오브제가 총 500여 점이라니,
춤이 가리지 않을까요.**

양정웅 “초기 단계부터 어떻게 하면 옷도
살고 춤도 살지, 상생의 방향성을 많이
얘기했거든요. 안무가와 디자이너가
평평을 잘 하고 있죠.”

서영희 “한복을 어디까지 모던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가 도전인데, 안무가가 춤을 푸는 방법과 내가 한복을 푸는 방법이 비슷해요. 탈춤에서 탈을 없애면 어떠냐, 적삼이 춤에 방해가 되면 소매를 잘라 버리자는 역발상 코드죠. 무용단의 움직임에서 승고한 느낌을 받았어요. 숨만 쉬어도 춤추고 있는 듯한 경지에 오른 무용수들을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정보경 “꼭 춤을 춰야 춤이 아니거든요. 이 레퍼토리 안에서 선생님의 옷이 고스란히 보여지는 장면도 있었으면 해서 강강술래를 그렇게 제안했어요. 원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개념만 가져와서 선생님 의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려고 해요. 기존의 강강술래가 아닌 패션쇼가 되는 거죠.”

한국무용 현대화에 성공한 기존 작품들은 갈군무의 에너지가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정보경 “우리 작품에도 군무의 힘이 존재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군무에서 흩어져서 개별적으로 뿔어져 나오는 색깔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보여주고 싶거든요. 29명이 각자 무용수로서 우리나라 최고의 국립무용단에 왜 존재하는지 증명하는 무대가 되었으면 해요. 난사시켰다가 어느 한순간 다 같이 딱 모였을 때 하나로 보여지는 응집력도 있을 겁니다.”

양정웅 “춤이란 워낙 통일적인 대형을 추구하지만, 정보경의 안무와 동선은 아주 특별해요. 각 유닛이 연결되면서 통일되는 방식이 아주 다양하고 독특하죠. 특히 부채춤과 탈춤의 포메이션 방식이 힙하고, 대중성도 보일 겁니다.”

전통 현대화를 표방한 갈라 프로젝트라 국립무용단 대표 레퍼토리인 ‘향연’과 비교될 수밖에 없을텐데요.

양정웅 “우리 안무의 가장 큰 매력은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스토리라인을 갖고 다 다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장면에 웃는 사람, 꺼안고 있는 사람, 꼭두각시 놀음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민속춤으로 보여주고 싶은 다양성과 다채로움이기도 해요. <향연>과의 차별점도 거기 있어요. 민속무용 자체에 다양한 계층과 지역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 창작진 각자의 취향이 충돌하고 조화해서 민속무용처럼 다채롭게 펼쳐질거라 생각해요. 전체지만 그 속에 다양하게 개성이 숨어있는, 김홍도·신윤복의 그림 같은 거죠.”

출연진



김현숙



김현주



장현수



김미애



김은영



김영미



문지애



정세영



최원자



정소연



이윤정



정현숙



김은이



엄은진



김희정



박미영



장윤나



전정아



이민영



이의영



박지은



송지영



박혜지



이요음



박소영



박수윤



이재인



김나현



이승연



강은비



김수정



박소영



박수빈



박효빈



변현정



선은지



성현경



이민성



이수현



이채린



이현승



이현영



장보경



장선주



정채린



천성은



최승은

창작진

예술감독 김종덕

연출 양정웅

안무 정보경

의상·오브제디자인 서영희

음악 장영규

무대디자인 신호승(Roh Haus)

조안무 송지영·송윤주

조연출 윤영주

음악조감독 최영

무대디자인 코디네이터 신나경

조명디자인 원재성

음향디자인 이상현

영상디자인 김장연

무대감독 양정원

의상·오브제제작감독

김지원(모리노리)

헤어피스제작감독

박규은(큐밀리너리)

의상감독 조근하

소품감독 채수형

장신구감독 김은경

분장디자인 박효정

분장팀 박효정 오하나

한도희 박영빈

쌍검 검술지도 김은희

콘셉트 사진 보그 코리아

사진작가 최나람

홍보물디자인 워크룸

홍보영상 스튜디오 것

옥외홍보물 대일특수

재활트레이닝 롤링 엔 웨이브

명주 후원 함창명주·아워시선

국립극장 제작진

극장장 박인건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겸 단장 김종덕
책임프로듀서 오지원
프로듀서 김영숙 이정연
총무 변승희
인턴 이희원

공연기획부

공연기획부장 이동현

전속단체공연지원팀

행정 장미혜
마케팅 김어진이 박양미 이지혜
정보슬
물리치료실 송기현

공연기획팀

행정 송성남 정일환
책임프로듀서 권태연 이재금
공연기획팀 최성민 이서정
박세미 오수정 이승민 이종민
정효재 송화진 송영은 박은혜
하우스매니저 변혜진 이선옥
박지현
티켓마스터 정연정 김재경
오윤지
공연안내 정지윤 이인영 이지윤
유아놀이공간 이은혜

무대예술부

무대예술부장 손후윤(직무대리)

무대기술팀

무대기술팀장 손후윤
행정 김홍석
안전관리 김동욱 목호찬
무대감독 양정원
무대조감독 박재민
기계감독 김진년 이정환
기술지원 김성식
조명디자인·감독 원재성
프로그래머 공미진
오퍼레이터 이준
팔로우 스팟 운용 장해강
이수빈 최기춘
기술지원 박문섭 주영석
김종락 홍소라 이희선
음향디자인·감독 이상현
오퍼레이터 이현주
기술지원 김은희 진하명
손동민 이예원
영상감독·오퍼레이터 임영선
오퍼레이터 이송주

무대미술팀

무대미술팀장 정복모
행정 정옥
장치감독 강승구
제작·전환 김정규 김항원
김지일 유민석 김선우 최성훈
신술기 윤하은
작화 김유리 박순용 최다정
소품 채수형 홍재민 박현이
김민주
장신구 신종현 김은경
의상 조근하 김효영 유상현

교육전시부

교육전시부장 김만수
홍보팀장 유옥경
행정 정재우
책임프로듀서 우다슬
홍보팀 정선영 박은영 김보나
구해나 전강인 정영호 양하림
정일석 유정수 노승관

국립무용단

1962년에 창단된 국립무용단은 국립극장의 전속단체로 전통을 기반으로 한 창작을 목표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초대 단장인 송범을 시작으로 조흥동·최현·국수호·김현자·배정혜·윤성주·김상덕·손인영에 이어 현재 김종덕이 예술감독 겸 단장을 맡고 있다. 당대 최고의 춤 예술가들의 지도하에 전통과 민속춤을 계승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동시대의 관객이 감동할 수 있는 현대적인 작품 개발을 위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 레퍼토리로는 전통춤 모듬 〈코리아 환타지〉, 무용극 〈춤, 춘향〉, 세련된 한국춤 〈목향〉 〈향연〉, 해외 안무가와의 협업으로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 춤의 가능성을 확장한 〈회오리〉 〈시간의 나이〉 등이 있으며, 전통을 기반으로 각기 다른 미학의 춤 예술로 한국창작무용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다. 한국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국립무용단원은 역동적이고, 세련된 춤사위로 관객에게 행복한 미적 체험을 선사한다. 국립무용단은 현재의 감동이자 미래의 전통이 될 풍성한 레퍼토리 및 신작 개발을 위해 쉬 없이 정진하고 있다.

예술감독 겸 단장
김종덕

훈련장
장현수 정관영 정길만

수석
김미애 김희정 박지은 박해지
이도윤

부수석
윤성철 정세영 정현숙 황용천
송지영 조용진 이석준

단원
김현숙 김현주 김원경 박재순
김은영 김영미 문지애 이세범
최원자 정소연 이윤정 김은이
박기환 엄은진 박미영 장윤나
전정아 이민영 조현주 이의영
이재화 이요음 황태인 조승열
박준명 박소영 박수윤 이태웅
강대현 이재인 선승훈 김나형
박준엽 이승연

국립무용단
인스타그램 ndckorea

국립극장
인스타그램 ntong_ntong
유튜브 ntong2
블로그 ntok2010
페이스북 NTOkstory

FIVE 피어터하이라 FIVE BE

국립무용단 x 예효승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24-2025

6.25. - 6.29.

국립극장 | 달오름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김종덕 안무·연출 예효승

